전법 일기

생존으로 명상 찾는 교사 위해 만든 명상프로그램, 보급 기원

올해 2월 말에 장안중, 장안제일고 이사장님이 방문을 했다. 법회 장소 답사 차 오신 것이었다. 그때 차담을 하다가 그 학교가 17년 동안 학생들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쳐오고 있는데 강사로 와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동안 연구해왔던 지혜소통카드를 선물로 준비해서 갔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중학생 1학년,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공부를 전하고 있다.

학교를 가게 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명상을 정규 수업으로 채택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괴물로 변해가서 생존으로 명상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마침 도량에서 5월에 130명 정도의 교사들이 참석하는 부산교사불자연합법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1년 동안 수업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 달 동안 밤잠을 줄여가면서 연구에 매진했다. 그렇게 해서 법회 식순에는 없었지만 간청을 해서 식전행사로 명상체험을 선보일 수 있었다.

조금 엉성했던 프로그램은 발전의 계기를 만나게 된다. 8월에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팀과 외국인 대상 명상을 의논하게 되었는데 1~8일 중 며칠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왔다.

모두에게 이익하게 하라는 마음을 내다 보니 8일 동안 진행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8일 계획이 그림처럼 그려지면서 순식간에 구성됐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프로그램은 3일 간 진행됐다.

그런데 이때 마련된 8일 명상 프로그램은 날개를 달고 짜임새 있는 32차, 1년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됐다. 전체적으로 마음을 굴려쓰는 지혜를 담았다. 8가지 주제는 △마음의 원리 △배려가 담긴 말 △몸 돌보기 △마음의 길 따르는 하루 △자유로운 인간관계 △진짜 사랑 △빛나는 씀씀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다.

또한 모든 주제에는 체험 활동과 그림책이 있어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림책을 준비할 때 한 표정을 그리는 데만 해도 수십 번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따뜻하고 당찬 표정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모든 시름이 다 없어진다는 피드백을 해 주기도 한다. 내면의 맛을 본 청년회 법우들과 신도들은 이 법을 전하고 싶은 원력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학교에 강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혜와 정성이 깃든 이 프로그램을 한 초등학교에서는 곧 바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11, 12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지혜롭게 마음을 굴리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 학교 곳곳에, 세계 곳곳에 둘 아닌 도리가 전해지는 꿈을 꾼다.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⑩ 원효 대사의 오도송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세상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모습이네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心生故種種法生)
마음이 사라지니 부처를 모신 감실과 귀신의 무덤이 둘이 아니로다(心滅故龕墳不二)
세상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 모든 현상과 사물은 사람의 생각이 만든 것이니(三界唯心萬法唯識)
마음 밖에는 진리가 없는데 따로 무엇을 어디서 구하랴(心外無法胡用別求)

원효 대사(元曉, 617~686)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승이고, 사상가이다. 해동(海東)의 석가모니라 부른다. 그의 저서가 100여 종 240여 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존하는 저서는 19부 22권뿐이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십문화쟁론〉은 중국에서 그의 사상을 부처와 같은 경지에 이른 보살의 저술에 붙이는 '론(論)'이라 높여 불렀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상 최고의 사상가로 평가받는 현수(賢首) 법장(法藏, 643~712) 대사(중국 화엄종의 완성자)는 〈화엄경 탐험기〉와 〈대승기신론 의기〉를 저술할 때 원효의 〈화엄경소〉와 〈대승기신론소〉(일명 해동소)가 상당 부분을 인용하였다. 그래서 원효는 중국, 일본, 인도에까지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 사상계의 한류스타가 된 것이다.

원효 대사가 생존한 당시에는 중국의 선종불교가 전래되기 전이다. 따라서 원효의 오도송은 선종의 선사와 형식과 내용이 약간 다르다. 선적인 오도송이 아니라 교학적인 오도송이다. 조사어록보다는 불교 경전에 의거하여 깨달음의 내용을 설하고 있다.

원효 대사가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신 일화는 인구에 회자하여 일본의 사미승들도 아는 이야기이다. 시의 형식은 칠언고시이나 운율은 무시하였다. 기구와 승구의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의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부처를 모신 감실과 귀신굴(무덤)이 둘이 아니로다"는 〈대승기신론〉의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心生則種種法生)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법이 사라진다(心滅則種種法滅)"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불교교리의 핵심인 마음의 세계를 인용하여 자신이 무덤 속에서 자면서 깨달은 일화를 읊고 있다.

부처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내 마음인 중생심 속에 있으니
佛子, 부처의 마음으로 사는 人

무덤인 줄 모르고 잠을 잘 때는 호텔처럼 편안했는데, 아침이 되어 그곳이 무덤이란 것과 지난밤에 마셨던 시원한 물이 해골바가지 물이란 사실을 알고 토해내면서 더럽고 깨끗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진실로 물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깨달았다.

전구와 결구인 "세상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 모든 현상과 사물은 사람의 생각이 만든 것이니 마음 밖에는 진리가 없는데 따로 무엇을 어디서 구하랴"는 〈화엄경〉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一切唯心造)", 유식학의 핵심인 "오직 본질적인 실체(心法)인 마음만 있을 뿐 객관 대상(경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용해한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요체인 '마음(心)'의 세계를 원효의 오도송보다 명쾌하게 밝혀놓은 조사어록은 없다. 내 마음이 밝으면 부처의 세상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대낮 백주에도 본래 없는 귀신이 나타난다.

원효는 "부처의 마음도 중생의 마음도 내 마음인 중생심 속에 있다"고 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내 마음이 생각하고 인식한 세상이다. 불자(佛子)는 부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누가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나

개신교계가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일원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기도회를 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불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와 정치권에 자신의 세(勢)를 과시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도회를 앞두고 지난 8월 29일 개최한 교단장·총무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목사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비진리, 동성애 옹호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목사는 "현장과 온라인 등 200만 명이 모여 외치면 누가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목사들의 발언들은 '혐오'와 '갈등'으로 점철돼 있다.

카롤린 엠케의 저서 〈혐오사회〉에 따르면 사회에서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 부류는 소위 '사회적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이들은 항상 사회적으로 묵인된 폭력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름을 이유로 집단적 편견을 덧씌워 구조적인 폭력을 행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도리어 종교는 다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소도가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카롤린 엠케는 이렇게 말한다. "종교나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차별을 감지해내는 일, 사회적 공간이나 담론의 공간에서 추방된 이들에게 그 공간들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이다."

예수는 자신의 이름을 팔아 혐오와 갈등을 만드는 작금의 제자들을 보면 과연 자신의 제자라고 생각할까. '요한복음' 13장 34~35절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찰나 실수로 부서진 어깨뼈와
무너져버린 고향의 가족

네팔노동자 바하두르씨, 가족 생계 위해 농장 · 공장일 등
수술 후 월세방 더부살이…남은 건 병원비와 빚 7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